

## 치위생과 학생 및 비치위생과 학생의 구강건강 인식에 관한 비교 연구

이경희 · 권현정 · 윤혜정<sup>1†</sup>

신흥대학 치위생과

<sup>1†</sup>초당대학교 치위생학과

### A Comparative Study on the Knowledge of Oral Health betwee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Kyung-Hee Lee, Hyun-Jung Gwon and Hye-Jeong Youn<sup>1†</sup>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Shin-heung college, Uijeongbu-City 480-701, Korea

<sup>1†</sup>Department of Dental Hygiene, Cho-dang university, Muan-Gun, Jeollanam-do, 534-701,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ollege students basic knowledge of oral health of a college student and compare with the knowledge of oral health betwee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residents in Gyeonggi-do and Gwangju from June 2006 to May 2007.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Concerning the knowledge of oral health, dental hygiene students got the source of information most frequently from school work about oral health(80.0%)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got from health programs of TV or radio(42.7%). Concerning the reason of keeping of oral hygiene, dental hygiene students were to preventive of dental caries(80.9%)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were to preventive of periodontal disease(52.4%).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p < 0.001$ ). 2. The knowledge degree of dental caries, to the both groups, methods of preventing caries appeared regular brush and main cause of dental caries was not to brush.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p < 0.001$ ). 3. Dental hygiene students answered about the knowledge of fluoride know fluoride(93.6%)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answered (55.3%). Dental hygiene students thought that fluoride could preventive dental caries(85.5%) but non-dental hygiene students thought that fluoride couldn't preventive dental caries(51.0%).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p < 0.001$ ). 4. In the knowledge of oral health state, both of groups, replied that their own tooth state is average but they concerned about their tooth health.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p < 0.001$ ). About main cause of dental caries, students ranked that the first reason was the poor toothbrush and the second reason was the over intaking of sugared foods. 5. About knowledge of oral diagnosis, to both groups, students ranked that first could endure the pain and the second was in much pain. For both groups, students ranked that difficult of dental treatment was cost, fear and time.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dental hygiene students and non-dental hygiene students( $p < 0.01$ ). For both groups, when they visit dentist's office, they felt misgivings and fear.

**Key words** Dental hygiene students, Knowledge of oral health, Non-dental hygiene students

## 서 론

대학생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연령적으로는 대부분 청년기에 속한다<sup>1)</sup>. 이 시기는 가까운 미래에 사회에 진출하여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담당하며 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들의 건강이나 구강건강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은 사회 주변인과 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더하다고 할 수 있다<sup>2)</sup>. 또한 대학생들은 앞으로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되는 중간층에 해

당하는 시기이며 장기적인 면에서 볼 때 성인과 노인이 되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구강질환과 구강건강에 대한 좋은 중간 지표가 될 수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sup>3)</sup>.

또한 우리나라 2003년도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에 따르면 18-24세에 해당하는 연령계층별 1인평균보유 우식영구치수는 2.02개로 각 연령층에서 가장 높은 개수를 나타내고 있었으며, 1인평균보유 우식경험영구치수도 6.34개로 높은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sup>4)</sup>.

따라서 이 시기의 구강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정되나,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의 구강 건강은 대학생이라는 자율성과 성인이라는 미명아래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sup>2)</sup>. 그러므로 이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이들을 양성하는 교육의 장소인 대학에서 구강건강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들에게 알맞은 구

<sup>†</sup>Corresponding author

Tel: 062-220-4439

Fax: 062-225-9618

E-mail: nara78@hanmail.net

강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구강보건인식에 관한 연구로 Glasrud<sup>9)</sup>의 교육대학 학생들의 구강보건인식과 학교구강보건현장에서의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도 조사에서 교육대학 학생들은 본인의 생각에 의존한 구강건강에 대한 일관성 없는 견해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고, 구강보건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공중구강보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중에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구강보건인식을 개선시키고, 공중보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대중들의 구강보건인식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윈 등<sup>6)</sup>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구강건강상태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기적인 구강검진과 구강건강 및 각 개인의 구강상태에 따른 적절한 개인별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고, 윤<sup>7)</sup>은 구강위생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올바른 잇솔질과 주기적인 치석제거의 중요성에 대한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배<sup>8)</sup>는 구강보건지식, 잇솔질 횟수와 시간, 잇솔질 시기,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도 등이 대학생들의 구강보건관리 실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생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구강보건교육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있고, 효율적인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대학생의 구강건강인식에 대한 기초 자료가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 대학생의 구강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관심 및 실생활에서의 구강 관리에 관한 지식의 정도를 알아보고자 구강보건교육을 받은 경험이 비교적 많은 치위생과 학생과 이에 비해 구강보건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은 비치위생과 학생의 구강건강인식을 비교 분석하여 대학생들의 구강건강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향후 구강보건교육을 담당하게 될 치위생과 학생들에게는 구강보건교육의 필요성과 구강건강인식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실시되었다.

## 연구대상 및 방법

### 1. 연구대상

조사대상자의 구강보건 인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경기도 및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약 12개월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고, 자료수집 방법은 구조화된 설문지를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나누어준 다음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한 후 수거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배부된 설문지는 500부였으며, 이중 응답이 미비한 74부를 제외하고 426부를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그러나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들 간의 비교를 위한 표본추출시 임의추출이었으며 지역적으로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국한되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 2. 분석방법

통계적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PSS 12.0을 이용하여 시행하였고,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구강보건에 관한 인식도, 치아우식증에 관한 인식도, 불소에 관한 인식도, 구강건강상태에 관한 인식도 및 구강진료에 관한 인식도를 구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들의 인식도를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chi^2$ (Chi-square) 검정을 실시하였다.

## 결 과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자가 25.1%, 여자가 74.9%로 나타났고, 학년은 1학년이 73.9%, 2학년이 26.1%로 나타났다. 학과별로는 치위생과가 51.6%, 비치위생과가 48.4%로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연령별로는 20-21세 50.0%, 20세 미만 20.7%, 26세 이상이 11.3%, 22-23세 10.6%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대도시는 58.2%, 중소도시는 31.0%, 농어촌은 10.8%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 2. 구강보건에 관한 인식도

#### 1)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경로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된 경로에 대해 살펴본 결과, Table 2와 같이 치위생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수업이 80.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치과의원 (32.3%), TV 또는 라디오의 건강프로그램 (25.5%), 친구, 이웃 또는 가족 (20.9%) 순으로 나타났다. 비치위생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TV 또는 라디오의 건강프로그램이 4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치과의원 (40.8%), 학교수업과 구강용품광고 (28.6%), 신문, 잡지의 건강에 관한 기사 또는 홍보책자 (27.2%) 순으로 나타났다.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을 비교한 결과, 학교수업 ( $p < 0.001$ ), 구강용품광고( $p < 0.01$ ), 신문, 잡지의 건강에 관한 기사 또는 홍보책자( $p < 0.05$ ), TV 또는 라디오의 건강프로그램( $p < 0.001$ ) 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 2) 구강위생의 유지이유

구강위생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Table 3과 같이 치위생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치아우식증 예방이 80.9%로 가장 많았고, 비치위생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치주질환 예방이 52.4%로 가장 많았으며,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

#### 3) 치아우식증에 관한 인식도

##### (1) 치아우식증 예방법

치아우식증 예방법에 대해 살펴본 결과, Table 4와 같이 치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ents (Unit: N, %)

Division		Frequency	Percentage
Gender	Male	107	25.1
	Female	319	74.9
Grade	1grade	315	73.9
	2grade	111	26.1
Major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220	51.6
	Department of non-dental hygiene	206	48.4
Age	Below 20 years	88	20.7
	20-21years	213	50.0
	22-23years	45	10.6
	24-25years	32	7.5
	Over 26 years	48	11.3
Area	Urban area	248	58.2
	Medium-small area	132	31.0
	Rural area	46	10.8
Total		112	100

**Table 2.** Sources of information about oral health

(Multiple response, Unit: N, %)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otal	p
Dental clinic	71(32.3)	84(40.8)	155(36.4)	0.068
School education	176(80.0)	59(28.6)	231(55.2)	0.000***
Continuing education	13(5.9)	11(5.3)	24(5.6)	0.799
Mobile school dental health education	25(11.4)	23(11.2)	48(11.3)	0.948
Oral hygiene devices advertizing	37(16.8)	59(28.6)	96(22.5)	0.004**
Newspaper, Magazine article on health or pamphlet	39(17.7)	56(27.2)	95(22.3)	0.019*
Health programs TV or radio	56(25.5)	88(42.7)	144(33.8)	0.000***
Friend, neighbor or family	46(20.9)	48(23.3)	94(22.1)	0.552
Physicians	16(7.3)	18(8.7)	34(8.0)	0.577
Etc	10(4.5)	10(4.9)	20(4.7)	0.880
Total	489(222.3)	456(221.3)	941(221.9)	

\*p < 0.05, \*\*p < 0.01, \*\*\*p < 0.001

**Table 3.** Reason of keeping of oral hygiene

(Unit: N, %)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otal	p
Dental caries prevention	178(80.9)	42(20.4)	220(51.6)	
Periodontal disease prevention	22(10.0)	108(52.4)	130(30.5)	
Removal of halitosis	2(0.9)	22(10.7)	24(5.6)	
Aesthetic purpose	3(1.4)	11(5.3)	14(3.3)	0.000***
Medical cost reduction	11(5.0)	19(9.2)	30(7.0)	
For a good example to children	1(0.5)	1(0.5)	2(0.5)	
Etc	3(1.4)	3(1.5)	6(1.4)	
Total	220(100.0)	206(100.0)	426(100.0)	

\*\*\* p < 0.001

**Table 4.** Preventive methods dental caries

(Unit: N, %)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otal	p
Regular dental visiting	66(30.0)	65(31.6)	131(30.8)	
Restriction of sugar intakes	12(5.5)	24(11.7)	36(8.5)	
Fluoride application	6(2.7)	5(2.4)	11(2.6)	0.076
Use of fluoride dentifrice	1(0.5)	4(1.9)	5(1.2)	
Regular toothbrushing	135(61.4)	108(52.4)	243(57.0)	
Total	220(100.0)	206(100.0)	426(100.0)	

위생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규칙적인 잇솔질이 61.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기적인 치과내원이 30.0%로 나타났으며, 비치위생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규칙적인 잇솔질이 5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기적인 치과내원이 31.6%로 나타났으며,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 치아우식증의 발생원인

치아우식증의 발생원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Table 5와 같이 치위생과 학생들의 경우에 불충분한 잇솔질이 75.0%로 가

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당분과다섭취가 22.7%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치위생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불충분한 잇솔질이 55.3%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다음으로 당분과다섭취가 37.4%로 나타났으며,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4) 불소에 관한 인식도

(1) 불소인지 여부

불소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Table 6과 같이 치위생과 학생들은 불소를 알고 있는 경우가 93.6%로 나타났고, 비

**Table 5.** Cause of dental caries

(Unit: N, %)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otal	p
Inadequacy toothbrushing	165(75.0)	114(55.3)	279(65.5)	
Sugar excessive intakes	50(22.7)	77(37.4)	127(29.8)	
Through lack of nourishment	1(0.5)	7(3.4)	8(1.9)	0.000***
By an increase in age	1(0.5)	4(1.9)	5(1.2)	
Etc	3(1.4)	4(1.9)	7(1.6)	
Total	220(100.0)	206(100.0)	426(100.0)	

\*\*\* P < 0.001

**Table 6.** The knowledge degree of fluoride (Unit: N, %)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otal	p
Yes	206(93.6)	114(55.3)	320(75.1)	0.000***
No	14(6.4)	92(44.7)	106(24.9)	
Total	220(100.0)	206(100.0)	426(100.0)	

\*\*\*P < 0.001

치위생과 학생들은 불소를 알고 있는 경우가 55.3%로 나타났으며,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2) 불소의 치아우식 예방인지 여부

불소의 치아우식 예방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Table 7과 같이 치위생과 학생들은 예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5.5%로 가장 많았고, 비치위생과 학생들은 잘 모르겠다가 51.0%로 가장 많았으며,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5)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인식도

(1) 본인의 치아 상태에 대한 인식

본인의 치아 상태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Table 8과 같이 치위생과 학생들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9.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금 약하다 26.4%, 조금 건강하다가 23.6%로 나타났으며, 비치위생과 학생들은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8.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조금 약하다 24.8%, 조금 건강하다가 23.8%로 나타났으며,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2) 본인의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도

본인의 치아건강 관심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Table 9와 같이 치위생과 학생들은 조금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5.0%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주 많다가 41.4%로 나타났으며, 비치위생과 학생들은 조금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5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아주 많다가 19.9%로 나타났으며,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01).

**Table 7.** Dental Caries prevention knowledge of fluoride (Unit: N, %)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otal	p
Could preventive	188(85.5)	80(38.8)	268(62.9)	0.000***
Couldn't preventive	5(2.3)	21(10.2)	26(6.1)	
Don't know	27(12.3)	105(51.0)	132(31.0)	
Total	220(100.0)	206(100.0)	426(100.0)	

\*\*\*P < 0.001

**Table 8.** The knowledge of oral health state in the subject (Unit: N, %)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otal	p
Very healthy	14(6.4)	15(7.3)	29(6.8)	0.984
A little healthy	52(23.6)	49(23.8)	101(23.7)	
Normal	86(39.1)	80(38.8)	166(39.0)	
A little weak	58(26.4)	51(24.8)	109(25.6)	
Very weak	10(4.5)	11(5.3)	21(4.9)	
Total	220(100.0)	206(100.0)	426(100.0)	

**Table 9.** The concern of tooth health in the subject (Unit: N, %)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otal	p
Very much	91(41.4)	41(19.9)	132(31.0)	0.000***
A little	121(55.0)	121(58.7)	242(56.8)	
Few	7(3.2)	36(17.5)	43(10.1)	
Don't know	1(0.5)	8(3.9)	9(2.1)	
Total	220(100.0)	206(100.0)	426(100.0)	

\*\*\* p < 0.001

(3) 본인의 치아우식 발생원인

본인의 치아우식 발생 원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Table 10과 같이 치위생과 학생들은 불충분한 잇솔질로 응답한 경우가 44.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당분 과다섭취가 40.5%로 나타났으며, 비치위생과 학생들은 불충분한 잇솔질로 응답한 경우가 40.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당분 과다섭취가 40.3%로 나타났으며,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6) 구강진료에 관한 인식도

구강진료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치위생과 학생들은 Table 11과 같이 진료 시의 동통을 견딜만한 정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7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극도로 아프다고 응답한 경우가 16.8%로 나타났으며, 비치위생과 학생들도 견딜만한 정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68.4%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극도로 아프다고 응답한 경우가 25.7%로 나타나,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치과 진료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Table 11과 같이 치위생과 학생들은 비용이 6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두려움

Table 10. Cause of dental caries in the subject

(Unit: N, %)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otal	p
Inadequacy toothbrushing	97(44.1)	84(40.8)	181(42.5)	0.753
Sugar excessive intakes	89(40.5)	83(40.3)	172(40.4)	
By run in the family	6(2.7)	9(4.4)	15(3.5)	
Because of tooth weak	22(10.0)	21(10.2)	43(10.1)	
Etc	6(2.7)	9(4.4)	15(3.5)	
Total	220(100.0)	206(100.0)	426(100.0)	

Table 11. Investigation about knowledge of oral diagnosis

(Unit: N, %)

division	Dental hygiene	Non-Dental hygiene	Total	p	
Pain of treatment	Hardly endure the pain	37(16.8)	53(25.7)	90(21.1)	0.117
	Endure the pain	172(78.2)	141(68.4)	313(73.5)	
	Comfort	8(3.6)	10(4.9)	18(4.2)	
	Etc	3(1.4)	2(1.0)	5(1.2)	
Difficulty of dental treatment	Time	13(5.9)	29(14.1)	42(9.9)	0.005**
	Cost	148(67.3)	121(58.7)	269(63.1)	
	Fear	58(26.4)	48(23.3)	106(24.9)	
	Distance	1(0.5)	6(2.9)	7(1.6)	
	Etc	0(0.0)	2(1.0)	2(0.5)	
Feeling of dental clinic visit	Very fearful	61(27.7)	54(26.2)	115(27.0)	0.541
	A little worry	116(52.7)	100(48.5)	216(50.7)	
	Not worry	36(16.4)	45(21.8)	81(19.0)	
	Comfort	7(3.2)	7(3.4)	14(3.3)	
Total	220(100.0)	206(100.0)	426(100.0)		

\*\*P &lt; 0.01

26.4%, 시간 5.9%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치위생과 학생들도 비용이 5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두려움 23.3%, 시간 14.1% 순으로 나타나,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치과방문 시의 느낌에 대해 살펴본 결과, Table 11과 같이 치위생과 학생들은 다소걱정이다가 5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 두렵다 27.7%, 염려하지 않는다 16.4%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치위생과 학생들도 다소 걱정이다가 4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 두렵다 26.2%, 염려하지 않는다 21.8 순으로 나타나,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고 찰

구강건강 수준은 구강건강에 관한 지식, 태도 및 행동을 합리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향상되고 지식, 태도, 행동의 변화는 교육을 통해서 만이 변화된다. 따라서 구강보건 향상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활동이 바로 구강보건교육이라 할 수 있다<sup>9)</sup>. 대학생은 청년구강보건대상에 속하며, 미래 사회의 주역이요, 장차 학부모가 될 것이므로 대학생들의 구강건강 관심도를 살펴보는 것은 앞으로 미래사회의 구강보건 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sup>10)</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들의 구강보건인식에 대해 비교 조사하여 구강보건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구강건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구강보건에 관한 지식경로에 대해 살펴본 결과, 치위생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학교수업이 80.0%로 가장 많았고, 다

음으로 치과의원 32.3%로 나타났으며, 비치위생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TV 또는 라디오의 건강프로그램이 42.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치과의원이 40.8%로 나타났다. 송<sup>11)</sup>의 연구에서는 일반계열과 보건계열을 비교하였을 때 두 그룹 모두 TV나 인터넷을 통해 구강건강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고 하였으며, 배<sup>8)</sup>의 전문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에서 정보를 얻는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비치위생과 학생들과는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으나 설문항 자체에 학교수업을 통해 얻는다는 항목이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수업을 통해 구강보건 지식을 얻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대중매체를 통해 구강보건 지식을 얻고 있으므로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유용한 많은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며, 비치위생과 학생들의 구강보건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업을 통한 정보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구강위생을 유지하는 목적을 살펴본 결과, 치위생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치아우식증 예방이 80.9%로 가장 많았고, 비치위생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치주질환 예방이 52.4%로 가장 많았으며,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 이것은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의 구강보건에 대한 정보의 차이에서 기인되었다고 생각되는데, 즉 각 구강병이 설문지 상에서 정확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강병과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질병을 정확하게 연결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다소 보인다. 따라서 이들 질환의 발생원인과 정의 및 예방에 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요구되며, 교육 후 다시 설문을 통한 자료 수집으로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치아우식증 예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가장 경제적이며 본인이 직접 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정기적인 치과내원, 당분섭취의 제한, 불소도포, 불소치약 이용, 규칙적인 잇솔질을 설문항목으로 설정하여 살펴본 결과,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들 모두에서 규칙적인 잇솔질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기적인 치과내원으로 나타났으며,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두 집단 모두에서 정기검진의 필요성과 잇솔질의 중요성은 인식한 상태이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이들의 실천성 여부를 통한 동기부여의 필요성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치아우식증의 발생 원인에 대해 살펴본 결과,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들 모두에서 불충분한 잇솔질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고, 그 다음은 당분과다섭취였으며,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 각각 응답한 사람의 수에서는 차이가 있었지만 두 집단 모두 치아우식증의 발생 원인이 불충분한 잇솔질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김<sup>12)</sup>의 연구에서도 본 연구와 비슷하게 이를 닦지 않았기 때문에 치아우식증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나 안<sup>10)</sup>의 초등학생 연구에서는 너무 많은 당분섭취가 원인이라고 응답하였다. 이것은 초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성장하면서 구강보건교육 등을 통해 얻은 지식의 확대로 인식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초등학생에서부터 성장기, 대학생이 될 때까지 계속적인 구강보건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불소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치위생과 학생들은 불소를 알고 있는 경우가 93.6%로 나타났고, 비치위생과 학생들은 불소를 알고 있는 경우가 55.3%로 나타났으며,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 또한 불소의 치아우식 예방인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치위생과 학생들은 예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5.5%로 가장 많았고, 비치위생과 학생들은 잘 모르겠다 51.0%로 가장 많았으며,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 배<sup>8)</sup>의 전문대학생 연구에서 도시관급수불화사업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서 설문에 응답한 70.1%가 알고 있었으며 강 등<sup>13)</sup>의 대우자동차공장에 근무하는 공장 근로자 연구에서도 불소가 치아우식예방효과가 있다는 사항에 대해 71.8%가 알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본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불소는 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식수에 불소를 첨가하는 도시관급수불화사업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아우식증 예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불소가 치아에 미치는 영향과 불소가 들어있는 구강위생용품 등을 홍보하고 좀 더 구체적인 교육을 통하여 구강질환을 예방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인식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본인의 치아 상태에 대하여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들 모두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2003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sup>4)</sup>의 구강보건인식과 비교해 볼 때 건강하지 않다가 36.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보통이다가 28.8%로 나타났다. 이것은 전체 인구 대상이므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 본인의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는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들 모두에서 “조금있다”라고 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 본인의 치아우식 발생 원인에 대해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들 모두에서 불충분한 잇솔질, 당분 과다섭취 순으로 나타났다. 조 등<sup>14)</sup>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구강건강 관심도를 보았을 때 조금 신경을 쓴다가 48.8%로 가장 많은 응답자를 나타내 본 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대학생이 되면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이성교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외모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때 외관상 보이는 치아배열이나 건강상태 등 구강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여겨지며 그와 더불어 치위생과 학생들은 본인의 전공을 통해 구강병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관심도가 더 높아진 것이라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구강진료에 대한 인식에 대해 살펴본 결과, 치위생과 학생들은 진료 시의 동통을 견딜만한 정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7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극도로 아프다고 응답한 경우가 16.8%로 나타났으며, 비치위생과 학생들은 견딜만한 정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68.4%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극도로 아프다고 응답한 경우가 25.7%로 나타났으며,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본 결과는 김<sup>12)</sup>의 연구에서 설문 응답자 중 89.4%가 치과진료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바 사람들의 치과경험이 많아지면서 치과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사라져서 나타난 결과라고 생각된다.

치과 진료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은 비용이 67.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두려움 26.4%, 시간 5.9%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치위생과 학생들은 비용이 5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두려움 23.3%, 시간 14.1% 순으로 나타났으며,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이러한 결과는 치료의 두려움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학생집단은 사회적으로 직장생활을 통한 지속적인 수입이 있는 상태가 아니므로 치료비용 부분이 치료의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등<sup>15)</sup>은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구강건강관련 교과목을 교양과목으로 채택하거나 대학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치과방문 시의 느낌에 대해 살펴본 결과, 치위생과 학생들은 다소걱정이다가 52.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 두렵다 27.7%, 염려하지 않는다 16.4%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치위생과 학생들은 다소 걱정이다가 48.5%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매우 두렵다 26.2%, 염려하지 않는다 21.8% 순으로 나타났으며,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배<sup>8)</sup>의 연구에서 치과치료를 제 때 못 받는 이유에 대한 조사에서 아프지만 치과에 가기가 겁이 나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치과는 독특한 냄새와 치료시의 시끄러운 소리 등이 치과 방문시 환자들에게 걱정과 두려움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각 치과에서는 환기를 자주 시키고 진료실과 대기실 간의 격리를 통해 환자의 공포감 등을 줄여주며 대기실은 편안한 환경과 분위기 조성으로 환자들에게 편안한 공간으로 여겨지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살펴볼 때, 전반적인 구강보건에 대한 인식이 비치위생과 학생보다 치위생과 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치위생과 학생을 위한 대학 재학 기간 동안 교육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교육 자료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치위생과 학생들의 경우 구강보건을 담당할 인력으로 더 다양한 교수법 개발과 교재개발에 힘써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치위생과와 비치위생과 학생 간의 구강보건행태를 바탕으로 구강보건교육을 어떠한 방향으로 시킬지에 대한 모색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요 약

현 대학생의 구강보건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관심 및 치위생과 및 비치위생과 학생의 구강건강인식을 비교 분석할 목적으로 2006년 6월부터 2007년 5월까지 조사를 실시하고,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구강보건에 관한 인식도를 살펴본 결과, 치위생과 학생의 구강보건 지식경로는 학교수업이 80.0%로 가장 많았고, 비치위생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TV 또는 라디오의 건강 프로그램이 42.7%로 가장 많았다. 구강위생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치위생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치아우식증 예방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0.9%로 가장 많았고, 비치위생과 학생들의 경우에는 치주질환 예방이 52.4%로 가장 많았으며,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
2. 치아우식증에 관한 인식도를 살펴본 결과, 치아우식증 예방법에 대해서는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들 모두 규칙적인 잇솔질이 가장 많았고, 치아우식증의 발생원인에 대해서는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들 모두 불충분한 잇솔질이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냈으며,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
3. 불소에 관한 인식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불소인지 여부에 대해 치위생과 학생들은 불소를 알고 있는 경우가 93.6%로 나타났고, 비치위생과 학생들은 55.3%로 나타났으며, 불소의 치아우식 예방인지 여부에 대해 치위생과 학생들은 예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85.5%로 가장 많았고, 비치위생과 학생들은 잘 모르겠다가 51.0%로 가장 많았으며,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
4. 구강건강상태에 대한 인식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본인의 치아 상태에 대하여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들 모두에서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본인의 치아건강에 대한 관심도에 대해서는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들 모두에서 “조금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

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 본인의 치아우식 발생 원인에 대해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들 모두에서 불충분한 잇솔질, 당분 과다섭취 순으로 나타났다.

5. 구강진료의 인식도에 대해 살펴본 결과, 진료 시의 동통에 대해서는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들 모두에서 견딜만한 정도와 극도로 아프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치과 진료시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치위생과 학생들과 비치위생과 학생들 모두에서 비용, 두려움, 시간 순으로 나타났으며,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1$ ). 치과방문 시의 느낌에 대해서는 치위생과 학생과 비치위생과 학생들 모두에서 다소걱정이다, 두렵다 순으로 나타났다.

## 참고문헌

1. 이홍수, 윤영만, 이재승, 김수남: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의 구강병으로 인한 활동제한에 관한 연구. 대한 구강보건학회지 25(3): 245-258, 2001.
2. 최은미: 대학생 구강보건지식 및 구강위생용품사용 실태조사. 동우대학논문집 6: 377-391, 1994.
3. 김진아: 제주도 고등학생의 구강건강에 관한 인식 및 실태 조사. 제주관광대학 논문집 6: 405-419, 2000.
4. 보건복지부. 2003 국민구강건강실태조사. 요약본 pp. 48-53, 2003
5. Glasrud PH.: Future elementary schoolteacher' knowledge and opinions about oral health and community programs. J Public Health Dent 48(2): 74-80, 1988.
6. 원상연, 신승철, 김선영: 대학신입생들의 구강상태인식도와 상대구강진료필요도에 관한 상관관계 조사연구. 대한 구강보건학회지 21(3): 491-503, 1997.
7. 윤희숙 : 대학신입생들의 구강보건 인지도와 구강위생상태와의 관련성. 경북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3.
8. 배지영: 전문대학생들의 구강보건관리에 대한 인식 및 관심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남대학교 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9. 송근배 김달호 신영림: 대구·경상도 초·중·고교사들의 구강보건 인식도에 관한 조사. 경북대학교 치과대학 논문집 10(1): 33-45, 1993.
10. 안금선: 구강보건인식도 및 관리실태에 관한 비교조사연구. 경북대학 논문집 2: 277-288, 1998.
11. 송설경: 일부 대학생의 구강보건인식 및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 성별 및 전공계열 비교를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12. 김수화: 경기도 K대학 학생들의 구강보건 인식도 조사연구. 경북논문 4: 393-408, 2000.
13. 강명신, 김종열, 김형규, 김백일: 구강보건인식, 태도, 행동 및 지식도가 치태관련질환 발생에 미치는 영향. 대한 구강보건학회지 18(1): 144-168, 1994.
14. 조은미, 임희순, 임선아: 일부 대학생의 구강보건인식 및 행동과 치주치료필요지수에 관한 조사. 구강생물학연구 25(1): 201-215, 2001.
15. 정기천, 이홍수, 김수남: 앤더슨 모형을 이용한 우리나라 일부 대학생의 구강진료이용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 구강보건학회지 27(3): 357-373, 2003.

(Received August 9, 2007; Accepted September 6, 2007)

